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kg@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 본당소식

### ◆ 콜럼버스·신시내티 한인천주교회 친선 골프대회

- 일시: 8월 23일(토) 12시 (티타임)
- 장소: Hamilton County Park District 내 골프장 (The Mill Course)  
1515 W Sharon Rd  
Cincinnati, OH 45240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도형 바울리노 형제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빈첸시오회 무료급식 봉사

-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sup>th</sup> Ave  
Columbus, OH

###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17일: 박귀영
- 8월 24일: 김태훈

###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3,6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20주일 August 17, 2008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피에트로 델 포 (1610 - 1692), 동판화, 대영박물관, 런던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주일 헌금 | \$496.00 |
| 교무금   | \$410.00 |
|       |          |
|       |          |

• 교무금: 홍그루 김도형 인영범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56,1. 6-7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11,13-15. 29-3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도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5,21-28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 구역   | 지난 주일   | 합계                     |
|------|---------|------------------------|
| 김제준  | 단 명     | 2,065단 17명             |
| 이호영  | 단 명     | 8,708단 75명             |
| 정하상  | 단 명     | 3,485단 77명             |
| 황석두  | 단 명     | 6,645단 70명             |
| 김효임  | 단 명     | 1,171단 29명             |
| 학생구역 | 단 명     | 10단 2명                 |
| 미사중  | 단 명     | 12,109단 10,315명        |
|      | 330단 2명 | 2/22/04-8/10/08 (234주) |

☞ 총누계: 198,428단 12,68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         | 8월 17일               | 8월 24일  |
|---------|----------------------|---------|
| 전례준비    | 서인원                  | 박시영     |
| 해설자     | 고상식                  | 김오경     |
| 독서/봉헌   | 최창배<br>김숙경<br>정하상 구역 | 이호영 구역  |
| 보편지향 기도 | 상지의 옥좌               | 십자가의 모후 |

## 오늘의 성가

♫ 입당: 1      ♫ 봉헌: 512  
♫ 성체: 153 188      ♫ 파견: 2

## 생명의 말씀

### 믿음으로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 /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을 지닌다(에머슨).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티로와 시돈 지방은 현재 레바논의 항구 도시들이다.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부인’은 곧 그 지방 토박이 부인이란 뜻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빵’은 구원을 뜻한다. ‘강아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 일컬었다(마태 7,6 참조).

이방인 부인은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구원의 조각이나마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청을 들어 주셨다. 민족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었다(이사 25,9 참조).

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루카 5,20 참조).

현대의학은 사람을 약을 쓰거나 수술하는 대상으로 본다. 원인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그 증상을 없애는가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을 중요시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라 생을 걸고 뛰어들어가는 것이다”(안토니 블룸 주교).

부산의 한 본당에서 사목할 때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의 부인이 찾아와 물었다. “신부님, 요즘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론이지요. 왜 그러세요?” “신부님도 아시는 우리 큰딸, 유치원에 다니는 레지나요. 왼쪽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과에 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어 걱정이었는데요. 친정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성당에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성수를 눈에 발라 줘라. 그러면 나을 게다” 하시더라. 대학을 졸업한 그는 “좀 짠 소금물인데 뭘!” 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친정 엄마의 말에 힘든 일도 아니고 또 답답해서, 혹시나 하고 주일 미사만 오던 분이 딸을 데리고 평일 미사에도 자주 나와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짙어 딸의 눈에 발라 주고 그랬는데 보름이 지났단다. 아이가 눈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책도 잘 보고 해서 “이게 기적인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해 주며, 친정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신 것 같다고 답을 했다.

믿음의 길이란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다.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돌다리 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처럼...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자. 평화와 기쁨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믿음으로 ♪ (가톨릭성가 480 번)